



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소개해달라. 독일의 뮌헨과 베를린,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, 대만의 타이베이에 총 5개 지사를 두고 있다. '실현 가능한 꿈(Tangible Dream)'을 슬로건으로 전자 제품, 운송 기기, 산업 기계, 의료 기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.

지금 근무하는 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? 결과물이 '레더링(redering)'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. 디자이너들이 엔지니어, 프로그래머와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 결과물을 시제품, 혹은 양산품의 형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. 직위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기회도 장점이다. 또한 디자인 과정에서는 담당하는 제품에 대한 실제 경험이 중요하네, 한국에서는 인터넷 리서치로만 해결하던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된다.

해외에서 디자이너로 살아가며 겪은 위기의 순간이 있다면? 6개월의 인턴십 기회를 잡고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뮌헨 땅을 밟았다. 비자 발급을 위해 회사 담당자와 함께 뮌헨의 외국인청을 찾아



## 양성철

독일, 뮌헨

파일럿피쉬(Pilotfish) 뮌헨 오피스 시니어 디자이너.  
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과 석사.  
sungchul.yang@pilotfish.eu

7년 차 산업 디자이너.  
글로벌 디자인 컨설팅 회사인 파일럿 피쉬에서 산업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.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에 매력을 느껴 디자인 공부를 시작했고, 독일 생활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다.

대표작  
인포게이트(InfoGate), 2010~2011.  
뮌헨 공항 이용객을 위한 인포메이션 키오스크 디자인.

갔는데, 경력자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취소됐다. 당시 회사에서도 아시아계 직원을 채용한 적이 처음이었기에 이런 문제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. 일주일 동안 총 다섯 번을 내리 거절당했다. 그럼에도 부모님께는 모든 게 잘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. 결국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, 독일 노동청에 '한국의 직장을 포기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 12시간을 날아 독일에 온 이 불쌍한 청년의 사정을 봐달라'는 편지를 보냈다.

해외에서 디자이너로 살아가며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? 인턴십을 마치고 정직원 계약을 했을 때(한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다), 그리고 2년 전 팀장으로 승진했을 때다.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은 느낌이었다.

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동료나 후배에게 조언을 한다면? 외국 생활은 생각했던 것처럼 환상적일 수도, 또 별로일 수도 있다. 실제 어떻게든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. 도전과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.